

'2년 연속 정상' 대한항공 vs '첫 우승' KB손해보험 맞대결

오늘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

대한항공, 5시즌 연속 진출...통합우승 노려

KB손해보험, 창단 첫 챔프...케이타 활약 기대

남자프로배구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최후의 무대'에서 만났다. 우승 트로피까지는 딱 두 걸음만 남았다.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은 5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단축되면서 올해 챔피언전은 3전2선승제로 열린다.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온 두 팀 중 2번의 승리를 따내는 팀에게 챔피언 타이틀이 주어진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팀 대한항공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겨냥한다. 챔피언전은 익숙한 무대다.

대한항공은 2016~2017시즌부터 꾸준히 볼배구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않은 2019~2020시즌을 제외하

고 5시즌 연속이자 통산 8번째 챔피언 진출이다.

몸으로 습득한 풍부한 경험은 대한항공의 가장 큰 무기다. 센터 한선수와 유광우, 레프트 박승석, 정지석, 센터 김규민, 진성태, 리베로 정성민, 오은영 등 '볼 배구' 경험자가 많다보니 큰 무대도 낯설지가 않다.

대한항공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범실이 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36경기에서 1003개의 범실을 쏟아내 7개 구단 중 최다 범실을 기록했다. 부문 2위 KB손해보험의 956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1위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범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배구로 시즌내내 승리를 쌓아왔다. 실책 하나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기전에서도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스타일을 고수해 승



리를 맞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전력을 누르고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KB손해보험은 첫 왕좌에 도전한다. KB손해보험이 챔피언전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익숙하지 않은 무대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는 게 과제다. 첫 챔피언전을 앞둔 주전 센터 활약의는 '챔피언전에 가면 긴장을 많이 할 것 같



다'며 '꿈의 무대'를 향한 동경을 드러냈다. KB손해보험이 가장 믿는 건 '말리 폭격기' 케이타다.

지난 18일 OK금융그룹과 경기에서 56점을 쏟아내기도 했던 케이타는 이번 시즌 1285득점을 수확, 2014~2015시즌 레오의 1282득점을 넘어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KB손해보험은 3일 한국전력과 플레이오

프에서도 1세트에 막혔던 케이타가 살아나면서 2세트부터 분위기를 반전, 승리를 쟁길 수 있었다. 케이타는 이날도 30점을 따내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두 팀은 정규리그에서도 팽팽한 대결을 펼쳐왔다. 상대전적 3승3패로 호각세다. 6번 중 절반이 세트 점수였다.

짧지만 치열할 혈투가 곧 막을 올린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 후반 9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1골(리그 14호) 1도움(6호)을 기록하며 팀의 5-1 승리에 이바지했고 토트넘은 4위로 올라섰다.

손흥민, EPL진출 후 20번째

한 경기 골-도움 동시 기록

같은 기간 리버풀 살라(23번) 다음으로 많아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손흥민(30)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후 20번째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시즌 EPL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43분 벤 데이비스의 동점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9분 추가골로 3-1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이후 2골을 더 추가하며 뉴캐슬에 5-1 대승을 거뒀다.

이날 1골 1도움을 추가한 손흥민은 EPL 14호 골과 6호 도움을 동시에 올렸다.

유럽통계업체 옵타(Opta)에 따르면 손흥민

이 EPL 입성 후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건 이번이 20번째다.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한 경기에서 20번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다. 같은 기간 모하메드 살라(리버풀·23번) 다음으로 많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이 19경기,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워너가 16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올렸다.

살라(20골)에 이어 디오구 조타(리버풀)와 함께 득점 랭킹 공동 2위인 손흥민은 공격포인트 부문에서도 살라(30개)에 이어 단독 2위다.

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를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전 15골 7도움이다.

김효주, 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8위

미국의 컵초 우승...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공동 53위

김효주(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안타와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8안타와 280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하나 그린(효주), 엘리스 리(미국), 나나 마센(덴마크)과 함께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최근 6차례 메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우승은 나오지 못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6

차례 연속 우승하지 못한 건 2009년 브리티시 오픈부터 2011년 LPGA 챔피언십까지 7개 대회 연속 이후 11년 만이다.

가장 최근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2020년 12월 김아림(27)의 US여자오픈이다.

대회 우승은 최종합계 14안타와 274타를 친 제니퍼 켈조(미국)가 차지했다. 켈조는 우승상금으로 75만 달러(약 9억1000만원)를 챙겼다.

김세영(29)과 최혜진(23)은 공동 17위(5안타)와 283타)에 머물렀다.

박인비(34)는 공동 35위(3안타와 285타)고,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은 공동 53위(이븐파 288타)에 그쳤다.

매진 없었지만...돌아온 관중에 3년만에 야구장 '복적'

개막전부터 관중 100% 입장 허용

개막 이후 이틀간 매진 사례는 없어

기대했던 만원 관중은 없었지만, 지난 주말 야구 팬들은 돌아온 야구 시즌 분위기를 한껏 느꼈다.

2022시즌 프로야구는 지난 2일 5개 구장에서 개막해 3일까지 총 10경기를 치렀다.

야구 팬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반가운 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있었던 야구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프로야구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50% 수준의 관중만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개막전부터 100%의 관중을 받았다.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하면 취식도 허용돼 관람의 매력인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며 야구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개막전 만원 관중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직관'에 목말랐던 팬들이 문이 활짝 열린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다. 코로나19 시대 이전이던 2019년 프로야구 개막전은 5경기 중 4경기가 매진됐다.

개막 이후 이틀간 벌어진 10경기에서 만원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우려와 떨어진 야구 인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아 치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개막경기, KIA 팬들이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다.

맥을 즐기며 개막 분위기를 즐겼다. 10경기에서 평균 1만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섰다.

지난해 1위 결정전을 치른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는 2일 개막전에서 '리턴매치'를 펼쳤는데, 이날 수원KT위즈파크에는 1만 7057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같은 날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가 대결한 잠실구장(1만6271명),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맞붙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1만6753명)에도 1만5000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했다.

관중 입장과 함께 굳게 닫혔던 구장 내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았다. 유니폼과 응원 도구 등을 파는 기념품샵은 물론이고 식음료 점에도 길게 줄이 늘어섰다.

육성 응원은 여전히 할 수 없지만, 관중들은 응원도구를 활용해 열렬한 응원을 펼치며 직관의 묘미를 누렸다.

관중석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두산, LG, SSG 랜더스는 개막 2연승을 달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반면 NC 다이노스와 KIA, 한화는 개막 2연패에 빠졌다.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 K리그 복귀한다

러-우크라 침공 따른 FIFA 임시 규정...서울 or 대전 유력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26)이 K리그로 복귀한다.

최근 축구계에 따르면 황인범이 단기 계약으로 프로축구 K리그로 돌아오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루빈 카잔 소속의 황인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임시 자유계약(FS) 자격을 얻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리그에서 자유롭게 뛰 수 있도록 임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소속팀 카잔도 3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까지 황인범과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력한 행선지는 FC서울이다. 서울의 한 관계자는 "황인범과 접촉 중인 건 맞다"고 인정했다.

FIFA가 정한 특별 이적 기한은 오는 7월까지다. 이때까지 황인범이 K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으면 6월 말까지 국내에서 뛰 수 있다.

선택은 황인범에게 달려있다. 서울 관계자도 "다수의 구단이 황인범을 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부리그인 K리그2 소속 친정팀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복귀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선수 본인 이 K리그1에서 뛰는 걸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발가락 골절 부상에서 회복 중인 황인범은 4월 말에야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태다.

2015년 대전에서 프로로 데뷔한 황인범은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하기 전까지 K리그 통산 106경기에서 16골 13도움을 기록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20년 8월부터 러시아 리그에서 뛰어왔다.

女배구 GS칼텍스, 집토끼잡기 성공...안혜진·유서연 잔류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가 '집토끼'를 다 잡았다.

GS칼텍스는 4일 "센터 안혜진, 레프트 유서연과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안혜진은 2억8000만원(연봉 2억원·유선 8000만원), 유서연은 2억5000만원(연봉 1억 5000만원·유선 1억원)의 조건에 사인했다. 계약기간은 각각 3년이다.

안혜진은 2016~2017 V-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GS칼텍스에 입단, 데뷔 첫 해부터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다.

2016~2017 V-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흥국생명에서 입단한 유서연은 이후 한국도로공사를 거쳐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로 GS칼텍스에 합류하며 안정적인 플레어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이번 시즌에는 강소휘, 모마와 삼각편대 한 축을 담당했다.

안혜진은 "지난 시즌 3위라는 성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다음 시즌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서연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유서연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